

사업장에서 의 건강증진(1) <금연과 절주지도>

# 과다 음주 근로자 사례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 미 형

## 머리말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술을 많이 마셔 왔으며 한국 성인 남녀의 약 70%가 음주를 하고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술로 인한 문제에 대해 별로 문제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은 만성적이고 진행적이며 재발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알코올중독에 의해 모든 가족이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도 장애를 가져와 가족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무서운 가족병이기도하다.

아래에 소개한 사례는 3차례의 병원 입원을 통한 과정 속에 본 연구자가 개발한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집단상담과, 본 연구자의 가족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퇴원 후 단주모임에 참석했던 환자와 가족에 대한 변화 및 이에 대처하는 방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환자소개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철수씨는 결혼하여 부인과 딸(12세), 아들(10세)이 있으며, 현재 41세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고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제약회사에

취업했으나 일이 힘들고 답답함을 느껴 군에나 가려고 삼사관 학교 시험 봤으나 실패하여 해병대에 장난으로 지원서를 썼는데 영장이 나와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한다. 군대 생활은 무척 힘들었고 죽지 못해 산 것 같다고 하였다.

술은 고등학교때부터 마셔왔으나 술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이 만기제대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주량이 늘었고 폭주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제대후 \*\*유리 생산직으로 취업하였으며 생산 라인이라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승진 문제로 상사와 다투고는 사무직으로 부서를 옮겼다고 한다.

이때 26세로 둘째 누나가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원인 부인을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다고 하며 결혼식 후 술 마시다가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였고 사진만 찍어 가족들을 속였다고 한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 자주 결근을 하게 되었고 반복되는 결근으로 인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94년 4월 16년간 다니던 회사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사표를 썼다고 한다.

94년 7월부터 친구 말을 듣고 우유 대리점을 시작하였고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잔금 처리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 부인이 나서 해결하였다고 한다.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일해야 하고 쉬는 날도 없어 피곤해 했으며 이때부터 해장술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손님들이 까다롭게 굴면 자존심 상해 하였고 수급하는 월말이 되면 술을 더 마시고 일 처리를 못하

여 부인이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고 함께 일을 했으나 유지가 안되어 95년 7월에 정리했다.

술만 먹으면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부인에게 자주 하였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에는 부인에게 의존하며 부인의 주장을 대부분 따라 집안 일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여 신체적인 문제로 내과 병원에 2번 입원하였고 퇴원 후도 계속 술을 마셨다.

95년 8월 母親喪 후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폭음을 하던 환자가 귀에서 어머니 소리가 들린다며 가족을 모아 놓고 녹음해서 들려주겠다는 등 엉뚱한 행동을 하여 부인이 시댁 식구들과 의논하여 내과 치료받자고 거짓말시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95. 9. 4~95. 10. 28). 퇴원 후 알코올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며 단주하던 환자는 조절해 마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술을 한번 마셔 보았으나 예전과 똑같은 양상으로 폭음하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조절하여 4개월간 단주하기도 하였다.

친구에게 보증을 서 준 문제로 돈걱정하며 고민하던 중 운전 면허 시험에서 떨어지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이후 조절되지 않아 병원에 재입원하게 되었다(96. 3. 2~96. 3. 14) 그 후 장인어른의 칠순 잔치를 이유로 12일만에 임의 퇴원하였고, 퇴원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칠순 잔치에 입고 갈 양복과 부조금 준비 문제로 걱정이 되어 술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 소주 3병을 마셨다.

음주는 2일간 계속되었고 환자 자신이 피로워 견디지 못하고 입원시켜 달라고 부인에게 사정해 단주 모임(AA)회원들 도움 하에 부인과 함께 내원하여 입원한 후(96. 3. 16~96. 5. 10.) 퇴원 후 3개월동안 단주모임에 나온 후 \*\*직장에 취업하여 12개월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였으나 공장의 자동기계화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2개월 후부터 현재는 가스회사에 취직하여 1년 7개월 현재까지 단주생활

을 하고 있다.

## 간호중재

환자에 대한 접근을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접근하였다. 첫번째 환자 자신에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두 번째로는 역기능 가정으로 인한 역할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세 번째로는 단주를 유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었다.

첫번째 환자 자신에 술로 인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 맨처음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병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환자는 이에 대한 접근으로 환자에게 알코올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의 특징은 자기 문제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보다 집단 교육을 실시하여 동료 술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의 휘드백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입원 25일이 되어서 본인이 알코올 교육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 때의 교육 내용은

- ① '알코올중독이란 무엇인가',
- ② '알코올중독이 신체와 정신 기능에 미치는 영향',
- ③ '알코올중독은 가족 병이다',
- ④ '회복에 이르는 길'을 다루어 주었다.

이 교육으로 환자 자신이 병에 대한 인식이 입원 40일쯤 생겨 자기 자신을 검토하면서 단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 상담에서는 자서전 발표를 통하여 지나간 세월 중에 술이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술로 인해 생겼던 일들을 검토하여 현재의 자신이 술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없음을 알게하였다. 또한 본인의 장점 및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 단주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같이 참석한 환자들이 긍정적인 휘드백을 주었다.

이 때 환자는 자신이 아직까지 신체적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고,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기간이 길고,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며, 부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열성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협조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이 단주를 해보고 싶은 의지가 강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휘드백을 받았다. 이 때 단주모임에 대해 소개 받으면서 퇴원 후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재입원을 통하여 단주를 하다가도 절주를 하고 싶은 충동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절주에 대한 생각을 단주모임에서 나온 협심자들과 소집단의 토론을 하도록 하여 스스로 어떤 모습인가를 비추어 보도록 하였다.

이 긍정적인 휘드백을 받은 후 소감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환자의 재입원은 공히 환자의 회복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집단 상담을 통하여 강조해줌으로써 환자가 주위의 시선이나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환자는 퇴원 이틀만에 재입원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고 남들이 무시할 것 같으며 우울한 모습으로 2주간을 지냈으나 입원 20일째에 치료진이 권유하는 운동요법에 참석하였고 알코올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알코올중독자임을 시인하였다.

집단 상담을 통해 단주 목표가 생겼으며 재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새로 입원한 알코올중독 환자들에게 술 문제에 대해 알려 주며 알코올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두번째로는 역기능 가정으로 인한 역할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원 당시 환자는 술을 먹는 이유가 자신보다 가족에게 있다는 이유를 강조하였다.

‘내가 술을 먹는 이유는 마누라 때문이에요 혼자만 잘났거든요.’, ‘아이들이 내 말은 안 듣고 엄마 말만 들어요.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퇴원하면

부권부터 회복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모도 장짜어 오라고 하면 엄마한테 모두 잤다 주거든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돈을 못버니까 나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빨리 돈을 벌어서 가정의 역할을 해야겠어요.’ 라는 호소를 하였다.

반면 부인은 ‘남편이 있으면 뭐해요. 일을 결정할 때 방해꾼 역할만 해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속편해요.’,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없을 때가 더 편하다고 해요. 딸은 노골적으로 아빠를 싫어해요.’, ‘생활비, 병원비 모두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있어요’, ‘나처럼 남편에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나는 모든 것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산다고 생각해요’,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 대우만 해달라고해요.’ 라고 호소를 하여 이 가족 내에서 문제가 되는 역할 기능을 부부가 함께 인식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환자에게는

- ① 입원 일주일 후부터 가정 문제에 대해 매일 20분간 얘기하며,
- ② 문제점들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도록 하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며
- ③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나 갈등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환자를 격려하고 지지하였으며,
- ④ 문제나 갈등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표현하도록 하였고,
- ⑤ 주 1회 가족 면회를 통하여 가정의 문제점을 얘기하도록 하였다.

부인에게는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화를 통하여 알리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여 부인은 95년 9월부터 남편이 퇴원하여 단주 생활 1년 7개월된 지금까지 꾸준히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다. 부인은 남편의 정신병원 입원이 남편의 술 문제를 위해 시도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주 금요일 2시간동안 진행되는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 처음에는 부인 자신이 남편에 대한 미움, 원망이 컸으며 또 한편으로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아주

버님이 40세경이 돌아가셨고, 특히 시아주버님이 슬로인한 간경화로 돌아가셨기에 남편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였다.

이에 부인의 감정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였다.

가족모임을 통하여 남편과 면회할 때와 대화할 때 남편이 집안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인 대화를 하도록 도와주었고, 퇴원 후에는 단주하는 남편에게 지지하는 대화 및 취직 문제로 고민할 때는 남편의 고민을 함께 나누되 남편의 직장생활을 잘 하는 것이 부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도록 매주 가족모임에서 다루어 주었다.

부부의 긍정적인 행동, 지식에 대해 휘드백을 주어 강화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체적인 지식과 관계를 맺는 기술을 교육하였고, 사랑의 편지를 교환, 가족모임 주최로 야외 소풍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부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생활과 함께 남편에 대한 자신의 변화(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직장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단주를 지속한 남편에 대한 격려의 말)를 보였다.

처음에 환자는 부인의 태도나 말, 주위의 여건이 자꾸 술을 마실 수 밖에 없게 만든다며 남의 탓으로 돌리더니 입원 25일 이후 2번째 부부 면담 시간에 술 문제로 자신이 여러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고 부인과 아이들에게도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 자신의 생활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서 단주하며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시도해 보겠다고 하였다.

부인은 자신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가족 모임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도 모순이 있음을 알았고, 알코올중독이 가족병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퇴원 후에도 가족 모임에

계속 주 1회 참석하고 계심.

세번째로는 단주를 유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도록 돕는데에 초점을 두었다. 환자가 입원해있는 동안 집 단모임이나 개인면담을 통해 술을 끊고자 하는 동기를 높혀주었다.

‘퇴원해서 시간이 있으면 단주 교육이나 A.A모임에 나가겠습니다.’, ‘오기로라도 이제 술을 끊어야겠지요.’, ‘3번씩 입원을 하니깐 창피해요.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지요.’, ‘단주를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김삿갓’이라는 새로운 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꼭 한잔 먹어 보고 싶네요. 어쩌면 좋죠?’, ‘퇴원후 한달만 놀고 직장을 구할 예정입니다.’라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단주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① 알코올중독 회복 프로그램인 단주 친목 모임(A.A)의 12단계를 읽고 환자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보고,
- ② A.A회원들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소개하고,
- ③ 병원에 있는 A.A모임에 참석시켰으며,
- ④ 수원크로바 A.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 ⑤ 퇴원 후의 재발 예방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회복에 이르는 길”을 읽도록 하였고,
- ⑥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 ㉠ 과거 재발 경험을 통해 예방 방법을 써 보도록 했고,
  - ㉡ 재발을 경고하는 증상 등을 알려주며 자신의 경험(미래에 대한 불안, 충동적인 행동, 외로움, 불규칙적인 일상생활, 쉽게 짜증이 남, 불면증, 가족과의 마찰, 계획에 따른 실천 부족, 알코올프로그램 참석 거부)을 얘기하도록 하였다.
  - ㉢ 하루 24시간에 대한 일일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 ㉣ 문제 발생시 의논할 수 있는 협심사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도록 하며,
  - ㉤ 퇴원 후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매주 1회 면담을 하기로하여 퇴원 10일째는 : 퇴원후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며 사람 만나기

가 싫어 알코올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일 생활 계획중 할수있는 최소한의 일반 실행에 옮겨 보도록 지지하였다.

퇴원 17일째는 : '주말에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 갔고 계획표에 맞추어 생활하려 노력 중이다.

불면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여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조정하도록 하고 불면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의논하였다.

퇴원 24일째는 : 약수터에 매일 올라가 운동을 하고 온다. 기분이 상쾌하고 허리를 앞으로 2인치 줄일 예정이다. 집에 오면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 산에서 다람쥐 2마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부인은 낚새난다고 싫어하여 환자에게는 가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고 부인에게는 가족모임을 통해 다람쥐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부가 해결하도록 하였다.

퇴원 31일째는 : 부인을 위해 청소를 하고, 저녁마다 아들 목욕을 시키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10년만에 처음 해본 것 같다며 아이가 좋아하고 아빠를 잘 따라 기분이 좋다고 하였고, 딸에게 아직도 어렵고 편치 않은 면이 있어 합창 발표회때 꽃을 사가지고 참석했다며 딸이 초등학교 입학후 행사에는 5년만에 처음 참석하셨다고 하였다.

퇴원 45일째는 : 직업을 구하는 문제로 고민에 대해 면담하였는데 직업의 종류와 단주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입사 후의 술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리적인 지지를 해드렸다.

퇴원 57일째는 : '출근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힘든 건 하지만 견딜만하고 일을 해서인지 불면증은 호전되는 것 같다.

입원 전에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는데 요즘엔 곧바로 귀가하니깐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하여 퇴근 후 남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해 드렸다.

## 맺음말

위 사례 환자는 알코올로 인해 직장을 잃고 자존심이 저하된 환자에게 경제적 및 가정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인이 가족모임에 나오면서 부인 스스로의 변화와 남편의 술문제를 인식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퇴원 후 환자가 4개월 후 재발이 되었어도 재발의 과정을 본인과 가정의 회복 단계로 갈 수 있었다. 현재 환자가 단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삶의 질적인 변화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알코올에 대한 인식 때문에 꾸준히 가족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 환자가 입원전 직장 생활에서 술로 인한 결근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 내에서의 도움받을 수 있는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으로 개발의 필요성과 퇴원 후에도 단주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이 환자가 동료들의 알코올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이다.

이 환자는 첫 입원시 환자의 알코올중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병식의 결여로 치료단계에서 저항하는 문제로 한계를 느꼈으나 지속적인 간호 중재로 환자 및 가족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가족의 중재는 환자의 의존적인 성격의 특성과 부인의 성격 특성에 중점을 두어 치료진이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회복되어 가고있는 과정에서도 직장을 다시 옮길 때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인이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던 직장을 옮기는 문제 등에 지속적인 간호 중재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술의 유혹을 받을 때 빨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함께 단주하고 있는 협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환자가 사회와 직장에 잘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계속 요구되는 경우이다.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실 목록**

	소재지	연락처	개설시간	비고
1	국립의료원흉부내과	02-260-7277(조동일 과장)	매월 1·3주 수요일 오후 2시	금연교실. 무료
2	경희대의료원 가정의학과	02-958-8695(최현립 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금연클리닉 (환자상담)
3	연세의료원가정의학과	02-361-6345(유인목 교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매주 월·수·금 오후 2시~3시30분	금연교육(무료) 환자상담
4	계명대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053-250-7548	문의요	
5	서울위생병원 건강교육과	02-210-3615	문의요	금연교실
6	부산위생병원 건강교육과	02-254-3069	문의요	금연교실
7	전주금연교실	0652-86-4273	문의요	금연교실
8	울산5일 금연학교	0522-77-1829	문의요	금연교실
9	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 가정의학과.내과	02-224-3956 어광수 전임의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금연클리닉)	
10	금연교육연구소	0373-72-8975(권승구 박사)	합숙교육	
11	안양금연학교	0343-48-8581	문의요	

**전국A.A(Alcoholics Anonymous)그룹목록**

97. 10. 현재 ○공개 ●비공개

요일	시간	그룹명	장소	위치	연락처	연락
월	15:00	맑은마음	국립서울정신병원 본관 지하매점 옆	중곡동	204-0151(조)	●
	19:30	한 마음	청소년 사업관 1층 극장	남영동	774-3797	○
	19:30	럭 키	강동성심병원 지하 1층 사회사업과	길1동	224-2147(사회사업과)	●
	19:30	새생명	부평성모자애병원 6층 임상세미나실	부평 6동	032)462-8646(송)	●
	19:30	반석	울산달동 사회복지관 2층	울산달동	0522)39-6074(윤)	○
	19:30	부천	부천성가병원 소강당	소명동	032)427-9415(전)	●
	20:00	부산동지	해운대성당 중3-2교실	해운대	051)508-4529(노)	●
	20:00	부산등대	경남은행 앞 한남한의원 옥상	서면	051)802-7196(전)	●
	화	19:00	익산한울타리	원광대 제2병원 신경정신과 내	동산동	0654)445-6695(신)
19:00		광주편운합	성요한 병원 신경정신과 지하	임동	062)529-0041	○
19:00		대전한빛	한일병원 3층	대화동	042)254-6085(김)	●
19:30		마산	상남성당	오동동	0551)46-2579(이)	○

요일	시 간	그 룹 명	장 소	위 치	연 락 처	비 고
화	19:30	평 온 합	콜롬반 회관 지하	도선동	292-7239	○
	19:00	겨 자 씨	서울적십자 병원 구내식당	서대문	398-9556(사회사업실)	●
	19:00	겨 자 씨	의정부 4동 성당 1층 3호	의정부	0351)45-1700	●
	20:00	부산새길	동대성당	동대신동	051)291-7462(허)	●
수	19:30	영 등 포	영등포 천주교회 주방 옆	영등포	3663-5666(노)	○
	19:30	고 마 음	상계동 천주교회 문화관 5교실	상계동	936-5972	●
	19:30	소 망	만수1동 성당 지하 104호	만수1동	032)811-6910(구)	○
	19:30	한 울	양재동 천주교회 지하 폐백실	양재동	3462-9981	○
	19:00	대전새희망	가톨릭문화회관 2층 회의실	대흥동	042)271-4732(김)	○
	19:00	대구새마음	우리집 식당 건물지하	대명8동	053)985-2289(심)	●
	목	11:00	부 천	부천성가병원 소강당	소명동	032)427-9415(진)
14:00		새 싹	광주 세브란스 병원 회의실	경기광주	0347)61-1890	○
15:00		밝은마음	국립서울 정신병원 본관지하 매점 옆	중곡동	2040-0151(조)	○
19:30		새 생 명	부평성모자애병원 6층 임상세미나실	부평6동	032)462-8646(송)	○
19:00		광주평온	함성요한 병원 지하	광주임동	062)529-0041	●
19:30		력 키	강동성심병원 지하1층 사회사업과	갑1동	224-2147	○
19:30		반 석	울산달동 사회복지관	울산달동	0522)39-6074(윤)	○
19:30		한 마 음	청소년 사업관 2층 회의실	태평로	774-3797	●
20:00		부산등대	경남은행 앞 한남한의원 옥상	서 면	051)802-7196(전)	●
금		19:30	마 산	상남성당	오동동	0551)46-2579(이)
	19:30	겨 자 씨	서울적십자병원 구내식당	서대문	398-9556(사회사업과)	○
	19:30	겨 자 씨	의정부 4동 성당 1층 3호	의정부	0351)45-1700	○
	19:30	늘 푸 른	한국신경정신병원 5층 사회사업실	성 남	0342)46-4211(김)	○●
	20:00	부산새길	동대성당	동대신동	051)291-7462(허)	●
	20:00	부산등지	해운대성당 증3-2교실	해운대	051)508-4529(노)	●
	15:30	크로바모임	수위 이미형 알코올 상담	실세류3동	0331)32-9478	○
	토	15:00	첫 마 음	명동성당 범우관 509호	명 동	774-3797
19:30		소 망	만수 1동 성당 지하 104호	만수1동	032)811-6910(구)	●
19:00		광주평온합	성요한병원 신경정신과 지하	임 동	062)529-0041	●
일	15:00	평 온 합	콜롬반 회관 지하	도선동	292-7239	○
	17:00	대구새마음	양재동 천주교회 지하 폐백실	양재동	3462-9981	○●
	18:00	한 울	우리집 식당 건물 지하	대명8동	053)985-2289(심)	○
	19:30	교본연구	반포성당 만남의 방	반포	599-0574	●
	19:30	고 마 음	상계동 천주교회 문화관 5교실	상계동	936-5972	○

**모임**

- 일 14:00 이천 모임 (성안드레아병원/19:30 청주 모임(여성의전화 사무실)
- 목 19:30 청주 모임 (여성의전화 2층 사무실)
- 월 19:30 종로 모임 (종로3가역 하차 종묘방면 출구/종로성당 301호)
- 금 19:00 홍성 모임 (홍성의료원 면회실)19/30 영등포역 모임(성요셉병원)
- 수 19:30 시흥동 모임 (시흥동 성당 교육관 수녀원 지하 사무회의실)
- 토 19:30 사당동 모임 (사당역/6번출구 사당동 천주교회 아보고 교육관)
- 수 19:30 일산 모임 (일산구보건소 2층 상담실)/13:30 오산 모임(오산/오산신경정신병원 1층)
- 토 16:00 일산 모임(일산구보건소 2층 상담실)
- 금 15:30 크로바 모임(수원 이미형 알코올 상담실)
- 목 19:30 시청앞 모임(시청역 하차. 3번출구/대한성공회성당 113호)
- 토 19:00 김포 모임(김포성당 교리실)

⋮

⋮

**알코올중독자 가족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계요병원 7층 사회사업과 나노요법실 ☎ 0343)55-3333  
매월 2째, 4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이미형 알코올상담실 ☎ 0331)32-9478